

13. 디지털 주의산만 Digital Distractions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 기술의 변화는 전세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디지털 혁명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변화시켰다.

2천년 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타문화 선교사로 헌신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었다.

- 직접 가서 언어와 비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행15:4).
- 어떤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말하면, 그가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 주었다 (행15:2).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 내용이 변할 수 있었다.
- 수신자에게 편지를 썼다 (행15:20). 이때 수신자가 잘못 이해할 경우라도 그 뜻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단이 없었다.
- 위에 열거된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했다 (행15:22-31).

앞의 예는 처음과 두 번째 선교기간에 사용된 것이다. 신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는 비교적 방금 세워진 지역교회나 거기서 선교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 편지는 경륜이 있는 선교사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썼다. 편지에는 개척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 경고, 안부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2백년 전

윌리엄 케리와 도로시 케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18세기 후반에도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걷거나, 말을 타거나, 배를 타고 다녔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중간에 전달하는 제 3자가 구두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편지를 썼다. 하지만 19세기에는 전보, 전화, 라디오가 발명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 알파벳을 점과 선 부호로 처리했고, 이를 전선을 통해 전기 신호를 줌으로써 멀리 떨어진 곳에 보냈고, 상대방은 전보를 다시 문자로 전환하였다.
-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이를 전선을 통해 보낸 후, 전화기를 통해 다시 음성으로 변경하였다.
- 음성을 전자기파로 코드화 시킨 후, 공중파로 내보내고, 라디오를 통해서 상대방에서는 다시 음성으로 변경시켰다.

더 이상 사람이 직접 찾아가거나,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을 두거나, 편지를 써서 소통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21세기 초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의사소통 수단을 갖게 되었고, 의사소통 수단들은 결혼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20세기 후반부에 컴퓨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정보가 디지털화 되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 선교사들이 의사소통과 오락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의사 소통 수단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 사용되는 것들을 열거해 보았다.

- 휴대폰: 사람들이 대화하고,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
- 이메일: 사람들이 메시지를 글로 써서 보내면, 받는 사람은 메시지를 편한 때에 읽는다.
- 스카이프: 컴퓨터를 통해 음성으로 대화하며, 만일 웹캠이 있으면 무료로 서로 볼 수 있다.
-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전세계에 걸친 사회망을 갖는다.
- 블로그와 유튜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읽고, 듣고, 볼 수 있게 자신의 생각과 영상을 올린다.
- 인터넷: 집에서 뉴스를 보게 하고, 수많은 곳에서 (포르노 영상을 포함해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
- 채팅룸과 인스턴트 메시지.
-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 이 목록들은 매년 늘어난다.
- DVD, 개인 영상 기기, 아이팟 등은 수 천가지 노래와 영상을 어디서나 갖고 다닐 수 있게 한다.
- 블랙베리와 팜과 같은 휴대정보단말기(PDA)는 일거리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위의 언급한 모든 것들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

선교사들은 위에 언급한 기기들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한번 클릭함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수천 마일을 이동할 필요 없이 한 단체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다. 누구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혼과 같이 좀 더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주의가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제들

이런 발명품은 교통수단이나 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다. 디지털 혁명은 교통수단을 크게 향상시켰다. 반면에 이 기기들은 기차, 항공기,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사업에 있어 몇 가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나, 때때로 창의성이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다중작업처리.** 20세기 말 젊은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예로 동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전화 통화하며, 공부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한번에 한가지 일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람이 ‘동시에 여러 일을 한다’는 것은, 한번에 하나 이상의 일을 한다가 보다는 이 일에서 다른 일로 빨리 관심을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 **방해.**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읽고 하는 것은 단지 몇 초 동안만 방해받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던 일에 다시 집중하려면 적어도 10-15분이 걸린다.
- **경계.** 디지털 혁명이 있기 전에는 집에 가면 사회적인 관계나 일은 잊어버렸다. 그러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로 인해 이런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 기기들을 갖고 있는 한, 당신의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다.
- **시간.** 일과 오락을 호주머니 속 기기를 통해 집에 가져온다. 이것은 가족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기에 시간에 있어서 청지기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휴대정보단말기 (PDA)를 갖고 있으려고 ‘애썼다’. 그 때 가장 큰 우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메일 알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주의가 산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결혼에 관한 예

물론 여기서 결혼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국가 안보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몇몇 문제들을 살펴보자.

-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가 당신에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기기들 때문에 화를 낼 것이다.
- **동료들과의 관계.** 상대방이 디지털 활동에 과도히 집착하면, 그 부부는 회사나 그들 도시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교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교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 **실제관계상실.** 여러 디지털 활동으로 산만한 사람은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회복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 **인상.** 테이블 아래를 힐끗 보는 정도일 수 있지만, 누가 전화했는지,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배우자가 볼 때 자기에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성적 환상.** 포르노 영상을 본 것이 들키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행동들은 성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게 한다.
- **시간 낭비.** 당신이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만들려고 하거나 DVD나 전자게임으로 몇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배우자와 그만큼 적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2월 『뉴스위크지(Newsweek)』에 “블랙베리가 대통령직을 망가뜨릴 것인가?”라는 기사가 나왔다. 블랙베리에 15분 정도의 시간을 쓴다고 해서, 당신의 결혼생활이 망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주의산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이런 문제를 배우자와 상의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매일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따로 낸다.
- 일과 가족간의 경계를 유지하고, 일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집에 올 때 핸드폰이나 휴대정보단말기(PDA)를 끈다.
- 이메일이나 음성 메시지는 서로 동의한 시간에만 확인하고, 배우자와 있을 때에는 세시간에 한 번, 하루에 네 번 정도 확인한다.
- 인터넷 포르노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런 것이 화면에 나타날 때 피할 수 있는 계획된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 페이스북이나 다른 사회망에 소비하는 시간을 한정하도록 한다.
- DVD나 전자게임에 들이는 시간을 한정하여,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더 갖는다.
- 동료들에게 당신과 전화 연결 가능한 시간대를 따로 알리고, 이 시간 외 다른 시간에는 디지털 기기를 끈다. 물론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

- 자신과 배우자, 가족에게 시간을 쓰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지칠 것이며, 결혼 생활은 깨지고 소진될 것이다.

이런 모든 제안들은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수단들이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할애되어 있음을 기억해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각자의 우선 순위에서 달려 있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